

성인의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매개변수 재조정

김 학 수
(삼척대학교)

Kim, Hak-Soo. (1999). Parameter resetting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5, 219~24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Korean learners of English reset the "prodrop" parameter of Korean into "non-prodrop" parameter of English in the process of English acquisition.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45 Korean learners of English on the prodrop phenomenon, namely on the null referential or null nonreferential subject, and subject-verb agreement by way of grammatical judgmen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L2 learners follow the parameter of L1, and then reset the parameter of L2 regardless of the parameter of L1 as their L2 abilities advance. Thus, this study provides further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universal grammar is available via L1. Second, the referential subject is, at first, easier to acquire than nonreferential subject, and the triggering fact for the switch from [+prodrop] to [-prodrop] was the use of nonreferential subjects. Third, 3rd person agreement has no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the prodrop parameter as a result of subject-verb agreement.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erb agreement is not a trigger for the recognition of the obligatory null subject.

1. 서 론

· Chomsky (1981)는 제1 언어습득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언어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부분적인 해답으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¹⁾을 제안했다. UG가 L1 습득에 작용하리라고 가정하고, 이것이 L2 습득²⁾에도 작용할 것 인지와 L1이 L2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관심사항이다. UG는 언어마다 다른 매개변수를 갖고 있다. 어떤 언어는 영주어를 갖고 어떤 언어는 영주어를 갖지 않는다.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같은 영주어 언어는 [+매개변수값]을 갖는가 하면 영어나 불어 같이 [-매개변수값]을 갖는 비영주어 언어들이 존재한다. 영주어언어는 시제 절의 주어가 탈락될 수 있는 반면에 비영주어 언어는 주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Chomsky(1981)는 영주어 (prodrop)³⁾ 매개변수를 제안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영주어 [+prodrop] 매개변수를 영어의 비영주어 [-prodrop] 매개변수로 어떻게 재조정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2 언어습득과 관련된 보편문법과 영주어 매개변수, 그리고 그의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은 실험과 그 결과를 분석, 논의하는 부분으로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주어 매개변수 습득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이 논문에서 설정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결론으로 가설을 통한 검증결과를 종합한다.

II. L2 습득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보편문법과 원리, 매개변수이론

최근 대부분의 언어습득연구는 어린이들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선천적 언어능력, 즉 보편문법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UG는 L1 습득에 있어서 두 가지 신비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들이 개인차나, 문화,

- 1) 원리와 매개변수이론으로 불리는 보편문법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Chomsky, 1991). 이러한 UG의 특성은 추상적으로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 2) 모국어인 L1을 제외한 모든 외국어를 통틀어서 L2로 지칭함.
- 3) prodrop은 이 논문에서는 영주어(null-subject)를 가리킨다. 그러나 비영주(non-null subject)와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prodrop의 앞에 자질표시 +, -와 각괄호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구별하였다. 자질표시가 없을 때는 보통 영주어를 의미한다.

환경, 경험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노출된 언어입력과 실제 얻게 되는 언어체계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UG는 어린이들의 부족한 입력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을 습득케 한다.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린이들의 내재된 언어습득장치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homsky는 보편문법을 제안했다. 보편문법은 습득할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의 유형을 제약하는 원리와 매개변수로 구성된다. 이 원리는 어린이에게 여러 추상적이고 복잡한 속성을 미리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언어입력이나 학습전략에 의해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고난 보편문법의 일부인 매개변수⁵⁾는 노출된 언어 환경, 즉 입력에 의해서 그의 가치가 결정되며 매개변수가 일단 선택되면 특정언어의 개별문법이 형성된다. 이러한 개념을 원리와 매개변수이론이라고 부르며, 이 이론에 바탕을 둔 습득모델은 매개변수설정 모델이라고 한다.

이때 매개변수의 개념은 문법습득이론 뿐만 아니라 L2 습득에서 또한 중요하다 (Hyams, 1986; Flynn, 1987; Phinney, 1987; White, 1988). 그 이유는 L1의 매개변수를 이미 설정한 사람이 L2 매개변수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성인학습자가 L2 매개변수를 재조정하는지 않는지는 L2에서 UG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L2 문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L2 습득의 중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성인이 UG에 접근하느냐 않느냐가 아니고 L2의 매개변수 값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 하는데 있다. 학습자는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매개변수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매개변수 값을 조정해 나간다. L1의 매개변수 값이 L2의 매개변수 값과 일치할 때는 그대로 L1의 매개변수 값이 이용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매개변수 값이 할당되어 습득이 일어난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습득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Flynn, 1986).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것은 UG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부터 완전히

4) 이것을 논리적 문제, 또는 Plato의 투사문제라고 한다 (Lightfoot, 1981).

5) 매개변수란 타고난 언어학습능력의 일부다. 이것은 언어속성들의 다발적 집합과 관련된다.

이용된다는 견해에 이른다. UG가 L1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L1의 존재가 성인의 인지, 성숙 같은 부정적 요인들에 의해서 다소 방해가 될지라도 UG의 원리가 L2 습득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UG가 L2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국어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인 L2 화자가 모국어 화자처럼 L2 습득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영주어 매개변수(prodop parameter)

보편문법의 원리는 보편적이지만, 이 원리가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간에 이러한 통사적 차이를 다루기 위해서 보편문법은 매개변수라고 부르는 매개변인화된 원리를 허용한다. 매개변인화된 원리를 매개변수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매개변수 고정 (parameter setting)이라고 말한다. 각 매개변수는 두 개의 값, 즉 [+value]와 [-value]를 갖는다. 이들의 선택은 입력자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일 어떤 매개변수가 입력에 의해서 선택되면 관련된 구조적 특징이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학습자는 이 각각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배울 필요 없이 하나의 특성이 설정되면 나머지 특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이어 습득된다고 말하고 있다(Chomsky, 1981). 이것은 결국 언어습득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매개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매개변수가 영주어 매개변수이다 (Chomsky, 1981; Jaeggli, 1982; Rizzi, 1982). 영주어 매개변수는 서술문에서 주어의 탈락여부와 관련된다. 이태리어나 스페인어 같은 Romance 언어는 영주어 [+prodrop] 언어에 속하고, 영어와 불어 같은 언어는 비영주어 [-prodrop] 언어이다. 예컨대, 대명사주어를 갖지 않은 다음 문장 (1)은 스페인어에서는 가능한 반면에 영어에서는 동등한 구문이 가능하지 않다.

- (1) Anda muy ocupada
is very busy
(She is very busy)

따라서, prodrop 매개변수는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매개변수 값

을 갖는 것 같다.

- (2) prodrop parameter : [+prodrop]
 e.g. Spanish, Italian
 [-prodrop]
 e.g. English, French

주어가 비어있는 언어를 영주어 (prodrop or null-subject) 언어라고 부르는 반면에, 어휘주어를 허용하는 언어를 비영주어 (non prodrop or non-null subject) 언어라고 한다. 제2 언어습득 연구에서 영주어 매개변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White (1989)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도 그의 영주어에 대한 3가지 특성⁶⁾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명사주어의 생략, 평서문에서 주어동사의 도치, 그리고 that-trace⁷⁾ 순서가 그것이다.

첫째, 대명사주어의 생략은 다음 (3a)에서처럼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 생략한다. 그러나 (3b)처럼 담화제약이 있을 때는 어휘명사를 사용한다. (3c)는 허사주어 대명사 it, there가 생략된 경우이다.

- (3) a. Anda muy ocupada
 is very busy
 (She is very busy)
- b. Luigi come como una bestia
 Luigi eats like a beast
 (Luigi eats like a beast)
- c. Llovio mucho ayer
 rained a lot yesterday
 (It rained a lot yesterday)

6) 이 매개변수의 특성들은 한 무리(cluster)를 형성하여, 하나의 특성의 습득되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습득된다는 것이다.

7) [+prodrop] 언어인 스페인어
 Quien dijiste que vino?(Who said that came?)
 Who did you say came?
 *Who did you say that came?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어처럼 영주어 언어는 공주어 (null subject)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영어와 같이 비영주어 언어에서는 항상 주어 필요로 한다. [+prodrop] 값을 갖는 언어들은 (3b)처럼 어휘명사가 주어 위치에 오는 것도 허용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담화상 제약을 갖는 경우이다. 그러나 영어에서 허사가 필요한 자리에 [+prodrop] 언어에서는 (3c)와 같이 항상 주어의 자리가 비어 있다.

둘째, 영주어 언어는 (4)에서 보듯이 서술문에서 주어-동사의 도치를 갖는다.

- (4) Vino Sr. Kim
 came Mr. Kim
 (Mr. Kim came)

위와 같이 주어동사의 도치는 영주어 매개변수 특성의 일부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주어이지만 스페인어처럼 도치가 불가능하다.⁸⁾

셋째, “that-trace” 결과는 (5)처럼 보문자 “that”를 포함하는 절에서 주어의 이동이 가능하다.

- (5) Quien dijiste que vino ?
 Who said that came ?
 (Who did you say came?)
 *Who did you say that came?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영주어 매개변수값에 속하는 것들로 하나의 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어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에 관해서, 즉 주어동사의 자유도치와 “that-trace” 순서가 영주어 매개변수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Liceras, 1989; White, 1989).

8)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영주어인 한국어에서도 도치가 가능하다.

3. 한국어 영주어의 특성

한국어는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공주어 (null subject)⁹⁾를 허용하기 때문에 영주어 언어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 영주어의 특성을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 공주어 (null subjects), 2) 허사주어 (expletive subjects)의 생략, 3) 서술문에서의 어순도치, 4) 매입절에서의 that-trace의 결과, 5) 동사의 일치가 그것이다.

첫째, 한국어는 (9)과 같이 주어에 공주어 문장을 허용한다. 이때 주어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 (6) 수미는 친구에게 사과를 먹었다고 말했다
(Sumi told a friend that [she] ate an apple.)

- (7) a. A: 철수는 어디에 갔니?
(Where did Chelsu go?)
b. B: 학교에 갔어요.
([He] went to school.)

(6)에서 매입절의 공주어는 모문의 주어에 의해서 결속된다. 다른 한편, (10)에서 생략된 주어는 '철수'로 해석된다. 그것은 (7)에서 '철수'가 담화주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일단 주어에 결정되면 그것은 다음에 오는 문장 속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 외에도 한국어는 등위절이나 종속절 문장에서 반복되는 주어는 보통 생략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영어와 대조되는 종속절의 경우만을 다음 (8)에서 살펴본다.

- (8) 캐나다에 돌아갔을 때 존은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When John returned to Canada, he saw his mother.)

위 문장에서 한국어는 종속절의 주어 '존'이 없다. Park (1989)도 한국어에

9) 이 논문에서 공주어(null subject)는 영주어(prodrop)와 구별하여 사용된다. 영주어는 비영주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세계의 언어를 둘로 대별하는데 사용된다면, 공주어는 단순히 주어에 비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서는 주어 없는 문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맥락상의 정보로부터 주어가 회복 될 수 있을 때 주어탈락이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 허사주어의 생략에 관해서 살펴보자. 허사주어란 보통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날씨, 거리에 대한 문장의 비인칭 주어를 의미한다. 이것이 한국어에서는 다음 예문 (9)에서처럼 생략된다는 것이다.

- (9) a. A: 몇시입니까?
 (What time is it?)
 B: 9시입니다
 (It is 9 o'clock)
- b. 덥다
 (It is hot)
- c. 역까지 걸어서 15분 걸린다
 (It takes 15 minutes to the station)

셋째, 서술문에서의 어순도치, 즉 주어-동사의 도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주어, 목적어, 부사가 (10)에서처럼 한국어에서는 그들의 위치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동사는 문장의 끝에 와야 한다.

- (10) a. 용찬이는 용경이에게 꽃을 주었다.
 (Yongchan gave the flower to Yongkyong)
- b. 용경이에게 용찬이는 꽃을 주었다.
- c. 꽃을 용찬이는 용경이에게 주었다.

Kuno (1973)도 한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스럽지만, 동사는 문장의 끝에 와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어-동사의 도치는 한국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스페인어에서는 다음 (11)과 같이 허용된다.

- (11) a. *왔다 용찬이
 came Yongchan
 (Yongchan came)
- b. Vino Yongchan
 (came Yongchan)

넷째, that-trace 결과에 관하여 살펴보자. 다음 스페인어 문장 (12a)은 문법적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영어문장 (12b)은 비문법적이다.

- (12) a. Quien dijiste que vino?
 Who said that came?
 b.*Who did you say that came?

한국어의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어는 (13)에서처럼 이동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that-t 결과¹⁰⁾가 적용되지 않는다.

- (13) a. 용찬이는 용경이가 왔다고 말했다
 Yongchan-Topic Yongkyong-Sub. came said
 (Yongchan said Yongkyong came.)
 b. 용찬이는 누가 왔다고 했는가?
 Yongchan-Topic who-Sub came said Q
 (Who did John say came?)

마지막으로, 주어동사의 일치에 관해서 살펴보자. 한국어의 경우는 주어-동사가 일치하지 안되지만 영어의 경우는 일치한다. 또한 한국어에는 기능적 범주인 굴절이나 보문소, 관사가 없다. 반면에 굴절과 보문소 등 기능범주를 가진 영어는 복잡한 서술어를 갖는다. 여기서 복잡한 서술어란 주동사와 동사의 접사를 가진 독립된 서술어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prodrop과 관련된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SV 도치와 that-t 순서가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두 가지 특성이 영주어 언어에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 영주어 매개변수 습득의 선행연구

영주어 매개변수에 대한 습득은 초기에는 White (1985, 1986)와 Hilles (1986), 그리고 Phinney (1987)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매개변

10) 'that-t 결과'의 의미는 that절에서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자리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White (1986)가 발견한 영주어의 특성이다.

수가 L2에 재고정된다는 관점에서 L2학습자에게 UG의 적용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최근에는 영주어를 형태론적 일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Hilles, 1991; Lakshmann, 1991). 이들 여러 가지 연구는 접근방법과 방법론이 서로 달라서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연구의 주요관심은 영주어의 매개변수 특성이 보편문법이 예측한 주장대로 L2에서도 나타나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L1의 매개변수가 L2에 전이되는지 어떤 매개변수가 무표 한지에 대한 것이다. White (1985)는 L2로 영어를 배우는 스페인어 학습자와 프랑스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주어 매개변수의 3가지 특징인 대명사주어의 상실, 서술문에서의 주어와 동사의 도치, that흔적의 위반등 세 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스페인어는 이태리어와 마찬가지로 영주어탈락 언어이고, 프랑스어와 영어는 영주어탈락을 허용치 않는다. White는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모국어에 영주어 매개변수를 갖는 학습자는 L2가 비영주어 매개변수를 가질지라도 모국어의 매개변수탈락을 택할 것이며, 둘째는 그런 경우 영주어 매개변수의 세 가지 특징들이 모두 함께 소실되리라는 예측이었다. 이들로부터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White는 “We will be late for school if don't take the bus.”와 같이 주어가 나와 있지 않은 영어문장을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의 분석결과 스페인 학습자는 초기에 위의 영어문장을 문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프랑스 학습자는 대부분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답하였다. 그의 연구결과 영주어를 가진 성인학습자가 처음에는 L1의 가치를 전이하다가 나중에는 매개변수의 가치를 L2에 재고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매개변수의 특성중 일부만 균집화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 주었다.

영주어 균집화 (clustering)에 반하는 증거로 Hilles (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Joe라고 불리는 12세의 스페인어화자의 영어습득과정에서 세 가지 매개변인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였다. 1)대명사의 필수적 사용, 2)비지시적 it나 there의 사용 (e.g. It's raining. There is rain in the forecast.), 3) 비굴절 조동사의 사용이 그것이다. 연구의 결과 이와 같은 특징들이 서로 관련 있게 행동함을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Joe의 지시적 주어사용의 결

여와 법조동사의 출현과의 관계에서 반대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Joe가 영어에서 대명사주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법조동사를 굴절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래서 [+prodrop]에서 [-prodrop]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적 요인이 비지시적 주어의 사용이라고 가정하면서 매개변수 고정 모델을 지지하였다. 여기서 White (1986)의 결과와 다른 점은 Hilles (1986)의 연구대상자가 12살밖에 안 되는 언어학습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Phinney (1987)는 성인의 스페인어 화자와 영어 화자가 만들어 낸 작문을 분석하여 영주어의 습득순서를 정하였다. 그는 교차언어적 연구를 통하여 영주어가 매개변수의 무표설정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그녀의 가설에 의하면 무표인 영주어 [+prodrop]에서 유표인 비영주어 [-prodrop]로 매개변수를 재고정하는 것이 그 반대보다도 훨씬 더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페인어 화자가 영어 화자보다 매개변수 재고정에 있어서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의 작문을 분석하여 동사의 일치, 대명사주어의 생략 (영어가 제2 언어인 집단), 대명사의 과도한 사용 (스페인어가 제2 언어인 집단) 여부를 검사하였다. 동사의 일치는 모든 집단에서 매우 정확했다. 공주어의 사용은 다음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영어 L2인 집단(ESL)과 스페인어 L2인 집단(SSL)의 동사일치와 대명사 주어 생략비율 (Phinney 1987)

	ESL(1)	ESL(2)	SSL(1)	SSL(2)
일치	79%	73%	82%	67%
지시적	13%	6%	83%	65%
비지시적	56%	76%	100%	100%

동사의 일치는 예상했던 것보다 모든 집단에서 매우 정확했다. 이는 영어에서는 틀리고 스페인어에서는 맞다. 영어가 L2언어인 집단에서는 지시적 대명사의 생략현상이 적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스페인어의 담화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맥상 지시관계가 분명한 종속절이나 등위절에서 생략되었다. 반면

에 비지시적 대명사, 즉 허사대명사의 경우는 L2 집단에서 생략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왜냐하면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에서는 대명사 주어가 절대로 금지되지만, 비영주어인 영어에서는 주어가 사용되므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매개변수 L1값을 영어에 전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영어 원어민들이 스페인어를 배울 때 스페인어의 지시대명사 주어와 허사주어를 모두 정확히 생략했고, 비인칭 구문에서 어휘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매개변수를 제2 언어로 재조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에 Hilles (1991)와 Lakshmanan (1991)은 영어의 L2 학습자에 대하여 형태론적 일치원리의 관점에서 영주어 현상을 조사하였다. 형태론적 일치원리 (morphological uniformity hypothesis: MUH)는 Jaeggli (1988)과 Safir (1989)가 제안한 영주어 현상에 대한 최근의 설명이다. 분리된 언어사실, 즉 영주어와 동사굴절을 통합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MUH는 영주어가 일치하는 동사모형을 지닌 언어 속에서는 허가를 받으나 불일치 동사의 모형(즉, 동사의 형태가 굴절되는 경우와 굴절되지 않는 경우)을 갖는 언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Hilles (1991)는 두 명의 어린이와 두 명의 청소년, 두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L2로서 영어를 배우는 스페인어 L1 화자 세 명이 UG에 접근했으며, 그들은 영어형태론의 습득과 비영주어습득의 관계를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Lakshmanan (1991)은 다양한 언어배경 (불어, 일본어, 스페인어)을 가진 세 명의 아이들로부터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4.6세에서 5.4세였다. 아동학습자는 UG에 직접 접근한다고 가정하고, 그녀는 그들의 습득이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 영주어는 초기단계에서 일어 날 것이다. (b) 어떤 동사도 초기에는 굴절되지 않을 것이다. (c) 영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영주어가 사라질 것이다.

스페인어와 일본어가 영주어 언어이지만 스페인어 L1화자는 영어중간언어에서 주어를 생략했다. 그리고 불어 L1화자는 허사주어를 생략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영어굴절에 대한 습득과 영주어의 허용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것을 Lakshmanan은 아동들이 보편문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증하였다. Lakshmanan의 연구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Hyams와 Safir (1991)에서도 논의되었다. 문제는 형태론적 형식의 사용이 곧 형태론적 일치 원리를 알고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태론적 어형의 변화가 결코 매개변수의 유발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III. 실험과 그 결과

여기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제2 언어학습자가 매개변수를 어떻게 재조정하는지를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검증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가설과 이론적 근거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L1)와 영어 (L2)가 서로 다를 때 영어 학습자가 매개변수를 어떻게 재조정하는지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결정해야 할 매개변수는 영주어 매개변수로 한국어 (L1)는 [+prodrop]이나 [-uniform]이고, 영어(L2)는 [-prodrop]이나 [+uniform]이다.

가설 1: 한국의 성인 영어학습자가 영어를 배울 때 학습초기에는 영주어 매개변수 설정에서 한국어의 매개변수를 따르다가 영어의 숙달도가 높아지면, 한국어의 매개변수와 상관없이 영어의 매개변수로 재조정할 것이다.

가설 2: 습득초기에는 지시적 영주어가 비지시적 영주어 (허사대명사)보다 배우기 쉬운 것이다. 첫째 이유는 지시적 영주어가 비지시적 영주어보다 자주 사용되어 무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시적 영주어가 의미론적, 담화적, 화용론적 규칙을 따른다면 비지시적 영주어는 통사적 규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생략의 경우는 어휘적으로 단순히 it, there를 삽입하는 것과 달리 담화론 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Teresa, 1997, p. 167).

가설3: 주어동사의 일치에 대한 습득은 영주어 습득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형태론적 일치 가설에 따르면 영주어는 형태론적으로 일치하는 언어에

만 허용되기 때문에 영어학습자가 영어가 [-uniform]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영주어의 매개변수를 비영주어의 매개변수로 재고정하는데 촉매(trigger)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어를 말하는 아이들은 [+uniform] 값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영어가 일치되지 않는 굴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긍정적 증거를 통하여 [-uniform] 값에 재고정하기 때문이다 (Hyams, 1986).

2. 연구방법

1) 대상자

이 연구에 참가한 학습자들은 실험집단 총 45명이다. 이 학습자들은 지방의 S 고등학교 인문계 2학년 학생으로 만 17세인 남학생들이다. 이들은 나이와 영어교육기간, 그리고 학습량에 있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영어권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영어능력에 따라 하, 중, 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영어 숙달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숙달도 테스트는 미시건 테스트로 토폴처럼 공인된 측정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밖에도 이 테스트를 사용한 이유는 토폴에 비해서 난이도가 학습자의 문법수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통사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시건 테스트 중에서 structure 에 관련된 50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능력별로 각각 15 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2) 테스트 문장

테스트에는 문법판단 과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제의 문장은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록 참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지시적 영주어와 비지시적 영주어 그리고 주어동사의 일치가 그것이다. 이들에 관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유형1: 지시적 영주어 문장 (null referential subject)

The students are excited because (he) is a new teacher.

유형2: 비지시적 영주어 문장 (null nonreferential subject)

The weather report says (it) will be cold tonight.

유형3: 주어동사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 hope he have a nice weekend.

이 문장들은 모두 영주어와 주어동사일치의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위의 22개의 문장가운데에 직접 실험에 관한 문제는 11 개로서 유형별로는 지시적 영주어 4문항, 비지시적 영주어 4문항, 주어동사 일치 3문항이다. 지시적 영주어 (유형1)는 한국어의 관점에서 영어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종속절에서의 영주어

When went to Mexico, John met Maria.

b. 주절에서의 영주어

When John went to Mexico, met Maria.

c. 주절과 종속절에서의 영주어

When went to Mexico, met Maria.

d. 두 개의 절에서의 주어

When I went to Mexico, I met Maria.

비지시적(유형 2) 문장은 아래 (14)와 같이 시간이나 날씨에 문장에서 영주어가 허사 "it"를 필요로 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4) It is 10 o'clock now.

유형 3의 문장은 (15)처럼 영어가 [-uniform]언어라는 것을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15) a. John go to school at eight o'clock every morning.

b. I watches television every night.

만일 한국인 학습자가 위의 문장이 비문법적이고 그들을 “goes”와 “watch”로 고친다면, 그들은 영어가 [-uniform]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영어학습자가 영어의 영주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주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제의 구성도 영주어인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문장이나 비영주어인 영어의 관점에서 보면 틀리는 문장들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나머지 11개의 문장을 추가시킨 것은 학습자의 주의를 실험문장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한 것은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시적 영주어 습득이 담화론적 이라면, 비지시적 영주어사용은 문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지시적 영주어는 영주어 매개변수를 비영주어 매개변수로 전환시키는 촉매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비지시적 주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략하기 때문이다 (Hyams, 1986). 이들 유형의 문장들은 또한 영주어가 오는 통사적 위치에 따라서 학습자가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고 영주어 문장을 주절과 매입절로 나누어 그 차이를 조사하였다.

유형 3은 주어동사의 일치에 관한 것으로 3인칭 단수로 범위를 국한하였다. 한국어는 주어동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지만 영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최근 영주어 현상과 관련 있다고 보는 형태론적 가설에 학습자가 얼마나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설문지 문장들의 유형과 관련된 항목들을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유형별 실험적 과제

유형1	지시적 영주어	5.	11.	14.	21.
유형2	비지시적 영주어	6.	7.	12.	15.
유형3	주어동사의 일치	10.	20.	22.	

대상자에게 문법적 판단테스트에 “correct”, “not correct”,를 답하도록 하였

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직관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만 대답하도록 하였다. 테스트의 목적이 대상자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문장에 대한 직관을 찾는 데 있으므로 한 번 읽고 난 뒤에는 다시 보지 않도록 주지시켰다.

다음 <표 3>은 숙달수준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영주어 매개변수에 대한 관계를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표 3
숙달수준과 변량분석

	SS	df	MS	F	P
모든 항목	20.93	2	10.46	3.05	0.0481
지시적 항목	0.044	2	0.022	2.02	0.0843
비지시적 항목	9.733	2	4.866	6.50	0.0032
동사일치 항목	4.933	2	2.466	3.72	0.032

3. 결 과

대상자들의 응답으로 분석해 본 이 논문의 문법성 판단테스트의 신뢰도는 모든 항목에 걸쳐서 앞에서 제시한 변량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F = 3.50$, $P = .0481$ 였다. 이 수치는 영주어 매개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1개의 비문법적 문항으로 이루어진 테스트가 숙달도에 따라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지시적 영주어인 경우 $F = 2.02$, $P = .0843$, $P < .05$ 의 유의수준을 넘고 있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영주어 매개변수와 관련된 세 가지 항목, 지시적 영주어, 비지시적 영주어, 주어동사일치가 숙달도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자가 반응하는지를 아래 <표 4>에서 보여준다. 지시적 영주어 4개 문장에 대해서 57.4%, 비지시적 영주어 4개 문장 68.4% 그리고 주어동사일치 3개 문장에 대해서 54.8%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 결과는 각각 <표 4>와 같다.

표 4
영주어를 가진 비문에 대한 전체 반응

	하	중	상	합계
지시적	61.7%	56.2%	54.2%	57.4%
비지시적	83.3%	68.3%	53.6%	68.4%
일치	62.2%	55.5%	46.6%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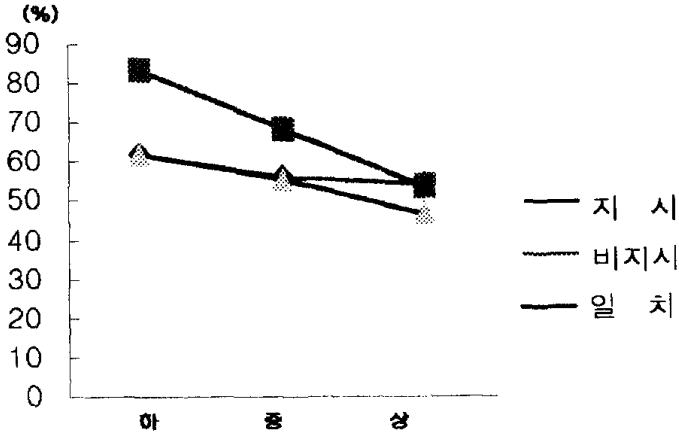
위의 <표 4>에 의하면 비문법적 영주어 문장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은 숙달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즉, 지시적 영주어와 비지시적 영주어 그리고 일치사이의 수준별 향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시적 영주어인 경우 하, 중, 상의 순서는 각각 61.7%, 56.2%, 54.2% 인가하면 비지시적 영주어는 83.3%, 68.3%, 53.6%이다. 이 백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학습자에게 제시한 틀린 문장에 대해서 옳다고 반응한 것에 대한 백분율이므로 숙달도가 낮은 “하”의 경우 지시적 영주어(61.7%)는 비지시적 영주어(83.3%)보다 습득이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상”의 경우에 반대로 비지시적 영주어(53.6%)가 지시적 영주어(54.2%)보다 습득이 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결과이다.

또한 비지시적 영주어의 습득이 지시적 영주어의 습득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향상의 폭이 큰 것은 매개변수의 재고정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특히 하위수준에서 학습자는 주어가 없는 영어가 문법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발견은 L2 학습자가 처음에는 L1의 매개변수의 영향을 받아 목표언어를 습득하고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Hyams 1983).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시적 영주어의 습득은 숙달도에 따라서 변화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모국어의 전이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숙달정도에 따라 두 개의 영주어 유형에 따른 습득의 차이가 있었다.

일치의 경우는 학습초기에 비문에 대한 문법적 판단의 정확도가 지시적 영주어의 백분율(61.7%)과 비슷했다(62.2%). 그러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치의 습득은 일관성 있게 향상을 보였다. 이것은 지시적 영주어와는 달리 매개변수 재고정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영어동사의 굴절

체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표 3>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 1
영주어를 가진 비문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표3 참조)



앞서 설명한 <표 4>와 같이 <그림 1>에서 좀더 쉽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비지시적 영주어의 습득이 지시적 영주어에 비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그리고 습득의 변화가 크게 매개변수의 재조정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치에 있어서 비문에 대한 문법적 판단의 정확성이 숙달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

다음은 전체적 반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1) 지시적 영주어에 대한 결과 (유형 1)

지시적 영주어를 가진 비문법 문장과 이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유형 1: 지시적 영주어 (N=15)

	하	중	상
5번	46.7%	40.0%	33.3%
11번	53.3%	50.7%	48.3%
14번	80.0%	73.3%	73.3%
21번	66.7%	60.6%	61.8%
계	61.7%	56.2%	54.2.0% (p<.0843)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시적 영주어에 대한 반응은 숙달도에 따라서 상, 중, 하에서 각각 61.7%, 56.2%, 54.2%가 나타났다. 그러나 22번의 경우는 중, 상의 수준에서 60.6%, 61.8%의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숙달도와는 거꾸로 설문지의 반응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설문지의 난이도가 학습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 여겨진다. 위의 22번 문장에서 동사 saw의 주어가 영주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부사구를 주어로 생각했던가, 아니면 All만을 주어로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2) 비지시적 영주어에 대한 결과 (유형2)

다음은 비지시적 영주어에 대한 비문법적 문장의 반응을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
비지시적 영주어에 대한 결과(N=15)

	상	중	하
6번	86.7%	80.0%	40.0%
7번	73.3%	73.3%	46.7%
12번	86.7%	46.7%	73.3%
15번	93.3%	73.3%	66.7%
계	85.0%	68.3%	56.7% (P<.0035)

위의 <표 6>에 의하면 비지시적 영주어인 경우 숙달도에 따라 85.0%, 68.3%, 56.7%의 비율로 비문법적 문장의 판단이 점차 정확성을 보였다. 그러나 문장별로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6번의 경우는 숙달도는 하, 중, 상 각각 86.7%, 80%, 40%이다. 특히 두 개의 숙달도인 중위수준에서 상위수준에 걸쳐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매개변수의 재고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습득 초기에는 한국어의 매개변수를 영어의 매개변수에 직접 전이하여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영어가 비영주어라는 것을 아는 데, 비지시적 영주어가 매개변수 재고정을 위한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16번의 경우는 숙달도 하, 중, 상의 경우 각각 93.3% 73.3% 66.7%이다. 학습초기에 대부분의 학습자가 비문법적 영주어를 옳다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중, 상의 경우는 73.3%가 66.7%로 반응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문체 자체의 난이도 때문에 영어가 비영주어라는 문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주어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유형 1에서 2까지), 숙달도가 낮은 대상자가 영주어를 가진 비문을 문법적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학습자가 처음에는 L1의 매개변수의 영향을 받아 목표언어를 습득할 가능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숙달도가 높은 거의 모든 수준에서 대상자의 60% 이상이 영어에서 영주어의 비문법성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아래 도표에 잘 나타나 있다.

표 7
영주어에 관한 주절과 매입절의 비교

		하	중	상	합계
지시적영주어	(주절)	50.0%	45.4%	40.8%	45.4%
	(종속절)	73.4%	67.0%	67.6%	69.3%
비지시적 영주어	(주절)	80.0%	76.7%	43.4%	66.7%
	(종속절)	90.0%	60.0%	70.0%	73.3%

위의 <표 7>의 비교에서 지시적 영주어인 경우는 주절 (45.4%)보다 종속절 (69.3%)이 비문법적 영주어 문장을 판단하는데 정확하지 못했다. 높은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문법적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L2 학습자가 처음에 L1의 매개변수를 목표언어에 전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경우 주절보다 종속절에서 주어의 대부분 생략하기 때문이다.

비지시적 영주어의 경우도 주절보다 종속절에서 문법적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영어를 영주어로 잘못 생각하고 중간언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숙달도의 측면에서 보면 비지시적 영주어의 경우 하위집단에서 잘못된 영주어를 문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심하다. 하위집단과 중위집단사이에 보이는 점진적인 발달은 갑작스런 매개변수의 재고정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습득이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나 상위집단에 가서는 큰 폭으로 하강하고 있어 문법의 정확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하위집단에서 특히 종속절에 전이가 나타나는 것 같다. 영주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유형으로 주어동사의 일치율을 들 수 있다.

3) 동사일치에 관한 결과 (유형 3)

동사의 일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의 목적은 영어가 불일치 [-uniform] 언어인지를 학습자가 아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인칭 동사가 굴절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조사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주어동사일치(N=15)

10번	53.3%	46.7%	46.7%
20번	60.0%	66.7%	40.0%
22번	73.3%	53.3%	53.3%
계	62.2%	55.6%	46.7% (P<.0032)

<표 8>에 의하면 숙달도와 주어동사의 일치는 크게 관련이 없다. 특히 21번의 경우 하, 중, 상에서 60.0% 66.7%, 40.0%이다. 숙달도 '하' 와 '중'은 일

치의 점수에 대한 백분율이 많아졌다. 즉 영어가 불일치되는 언어라는 사실을 학습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사일치 형태론이 영어에 대명사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유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4. 논 의

다음은 이 연구의 가설을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시사점을 논하려 한다. 첫 번째 가설에 의하면 한국의 영어학습자가 학습초기에는 L1의 매개변수고정을 L2에 전이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L2 학습의 시발점은 모국어이다. 따라서 학습초기에는 매개변수의 재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차츰 언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L1과 상관없이 대상언어의 자료만 노출되면 곧바로 매개변수를 재조정해 간다는 보편문법의 직접 접근설과 달리 간접 접근설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앞의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주어를 가진 비문법적 문장을 확인한 결과는 학습초기에 L1의 매개변수 고정애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지시적 영주어의 경우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변화의 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위수준에서는 주어 없는 영주어 문장을 문법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L2습득에 L1의 매개변수가 전이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위수준에서는 문법성을 판단하는데 높은 정확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L2 학습자는 전이기간이 지난 후에는 L1의 매개변수를 L2로 재조정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White(1985)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비지시적 영주어의 경우, 허사의 존재가 [+prodrop]에서 [-prodrop]로 매개변수 재조정을 위한 촉매라는 Hilles (1986)의 주장에 관하여, 이 논문의 결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허사가 없는 문장을 자세히 보면, 문장에 따라서 학습자가 매우 다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사가 없는 비문법적 문장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의 숙달도가 비록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확성은 문장에 따라서 달랐다. 즉 어떤 문장에서는 정확성이 높은가 하면, 어떤 문장에서는 정확성이 낮았다. 따라서 허사가 매개변수고정을 유발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두 번째의 가설은 지시적 영주어가 비지시적 영주어보다 학습초기에 배

우기가 더 쉽다는 점이다. 앞의 <표 4>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지시적 대명사는 비지시적 대명사에 비해서 학습 초기에는 비문법적인 영어문장을 수용하는 것 같았다. 그 이유는 습득초기에 비지시적 영주어에 비해서 지시적 영주어가 자주 사용되는 무표 문장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영어습득의 시발점을 영주어를 지닌 한국어로 본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는 한국어의 전이가 그대로 영어의 매개변수에 작용하리라 본다. 비지시적 영주어 (허사대명사) 생략의 경우 단순히 it, there를 추가하는 어휘적, 통사적 규칙에 적용되기보다는 복잡한 담화론적 규칙에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습초기에는 비지시적 영주어 (허사대명사)를 약간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허사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주어를 비영주어로 교체하는 촉매적 역할로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영어에 매개변수 재조정을 입증한다. 지시적 영주어와 비지시적 영주어는 하나의 매개변수가 갖는 두 가지 특성으로 서로 관련되어, 하나의 매개변수 특질이 습득되면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특질이 습득된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습득되는가의 가설은 연구결과 숙달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지 지시적 영주어에 비해서 비지시적 영주어는 숙달도에 따른 매개변수 재조정이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가설은 영어동사의 굴절체계 (주어동사의 일치)가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인식은 영주어를 비영주어로 바꾸는 촉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어 학습자는 영어가 [-uniform]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주어동사의 일치(54.8%)에 대한 테스트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시적 영주어(57.4%), 비지시적 영주어(68.4%)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문장에 따라서 비교적 높게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장 24번의 경우 하위수준은 비문법적 일치에 관한 문장을 확인하는데 중위 수준보다 더 정확하였다. 비지시적 영주어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하위수준은 비문법적 일치 문장의 판단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했다.

따라서 주어동사의 일치가 영주어 매개변수의 속성에서 독립된 것 같다. 즉, 이 매개변수는 관련된 특성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는 Jaeggli & Hyams (1987)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형태론적 일치가설의 예측은 옳지 못하다. 낮은 집단의 대

상자는 그들이 영어가 [-uniform]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영어를 영주어 언어로 다루는 것 같다. 하위집단에서는 비문법적 일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과는 3인칭 단수가 배우기 매우 어렵다는 Phinney (1987)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주어와 동사의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에는 영어와 달리 주어동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3인칭 단수의 일치가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치에 대한 인식이 곧 영주어의 매개변수를 전환하는 촉매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IV. 결 론

이 실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영주어 매개변수와 L2 습득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 L2 학습자가 학습초기에 L1의 매개변수를 따르다가 L2의 언어능력이 향상 됨에 따라서 L1의 매개변수와는 상관없이 L2의 매개변수를 재조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입력자료만 접하면 모국어와는 상관없이 보편문법을 이용한다는 직접 접근설과는 상관없이 간접 접근설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 습득초기에는 비지시적 영주어에 비해서 지시적 영주어를 배우기 쉽다는 가설이 실험결과 밝혀졌다. 그 밖에도 비지시적 영주어는 영주어를 비영주어로 전환하는 매개변수적 촉매 구실을 하였다.

셋째, 주어동사의 일치의 결과에서 주어-동사의 3인칭 단수 표시는 영주어 매개변수 습득과 관련이 없었다. 즉, 영어가 형태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언어라는 인식은 영주어 매개변수 재조정의 유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Jaeggli & Hyams (1988)의 형태론적 일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일치하는 언어들에 대상으로 하여 좀더 많은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Boe, D. (1996). *Parameter resetting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flectional richness and the null subject parameter*.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Chomsky, N. (1981).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ctic theory. In N. Hornstein and D. Lightfoot (eds.), *Explanation in linguistics: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London: Longman.
- Hilles, S. (1986). Interlanguage and the pro-drop parameter. *Second Language Research 2*, 33-52.
- Hilles, S. (1991). Access to universal gramma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L. Eubanks (ed.), *Point 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pp. 305-338). Amsterdam: John Benjamins.
- Hyams, N. (1986).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theory of parameters*. Dordrecht: Reidel.
- Hyams, N. (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in language acquisition. In O. Jaeggli and K. J. Safir (eds.) *Null subject parameter*
- Hyams, N. & Safir, K. (1991). Evidence, analogy and passive knowledge: Comments on lakshmanan. In L. Eubanks (ed.), *Point 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pp. 411-418). Amsterdam: John Benjamins.
- Jaeggli, O., Safir, K. (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and parametric theory. In O. Jaeggli & Safir (eds.), *The null subject parameter*: (pp.1-44). Dordrecht: Kluwer.
- Jaeggli, O. & Hyams, N. (1988). *Morphological uniformity and the setting of the null subject parameter*.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Koji, K. (1993). *Defectively working universal grammar and prodrop parameter resetting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h.D.

- Dis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Liceras, J. (1989). On some properties of the “pro-drop” parameter: Looking for missing subjects in non-native spanish. In S. Gass &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shmanan, U. (1991). Morphological uniformity and null subject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L. Eubanks (ed.), *Point 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pp. 389-410). Amsterdam: John Benjamins.
- Park, H. R. (1989). Subject drop paramete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Phinney, M. (1987). The pro-drop paramete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T. Roeper and E. Williams (eds.), *Parameter setting*. Dordrecht: Reidel.
- Rizzi, L. (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 White, L. (1985). The pro-drop parameter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35, 47-62.
- White, L. (1986). Implications of parametric variation for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V. Cook (ed.), *Experimental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learning*: (pp. 55-72). Oxford: Pergamon press.
- White, L. (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영어교육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성 명:
2. 성 별:
3. 나 이:
4. 학교와 학년:
5. 영어를 공부한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6. 영어 사용국에서 체류한 시기: _____살 때
기간: _____년 _____개월(해당자만)

* 다음 문장을 읽고 문법적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문장의 처음___에 표시하십시오.

- ___1. John goes to school at eight o'clock every morning.
- ___2. It was hard for him to get up this morning.
- ___3. My mother has some beautiful pictures.
- ___4. In June, it rains a lot in Korea.
- ___5. The students are excited because is new teacher.
- ___6. The weather report said will be cold tonight.
- ___7. On Monday, was very warm outside.
- ___8. It is ten o'clock now.
- ___9. I took many pictures when I was in San Francisco.
- ___10. I hope he have a nice weekend.
- ___11. Jane is tired because came home late last night.

- ___12. A long time ago, were many old books in our house.
- ___13. Because I was sick, I could not do homework.
- ___14. After lightening hit them, did not ring again.
- ___15. I found that was possible to see far below me.
- ___16. When I looked up, there was a cat on the branches in the tree.
- ___17. Mike speaks Korean very well.
- ___18. A long time ago there were many big plants in her living room.
- ___19. He visited many interesting places in Europe.
- ___20. Every day after class, he go jogging.
- ___21. All of a sudden saw a small bird near the bushes.
- ___22. Yumi and Ken often comes to my house.